은행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 입증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Meritz Research 2026. 5. 4

Overweight

1Q26 지배주주순이익 6.61조원 (+6.2% YoY): 컨센서스 +2%

커버리지 전통은행 합산 1Q26 지배주주 순이익은 6.61조원 (+138.5% QoQ, +6.2% YoY)으로 컨센서스를 2% 상회하며 양호한 실적을 창출. 은행별로 1)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의 경우 양호한 Top-line 성장에 힘입어 컨센서스를 평균 6% 상회, 2) 우리금융은 판관비, 충당금 관련 일회성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컨센서스를 22% 하회, 3) JB금융은 비이자이익 부진으로 컨센서스를 12% 하회

1Q26 Top-line은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하며 양호한 수준을 달성

1Q26 이자이익은 전년동기대비 5.1% 증가. 1) 대출성장률은 소폭 확대 (+0.9% vs. 1Q25 +0.6% QoQ). 가계대출은 규제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부진했으나 (-0.1% QoQ), 기업대출은 은행들의 적극적인 영업을 기반으로 양호 (+1.6% QoQ). 2) 그룹 NIM은 조달금리 감축 노력,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개선세를 시현 (커버리지 단순 평균 +3bp vs. 4Q25 +1bp QoQ). 현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시 연간 대출성장률 4% 및 연간 NIM 4~5bp 개선될 것으로 예상, 이에 26년 연간 은행 이자이익은 전년대비 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1Q26 비이자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3.0% 증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양호한 주식시장 환경에 힘입어 증권 브로커리지 수수료, 펀드/방카/신탁 수수료 등 수수료 수익이 크게 증가(+31.0% YoY)하며 실적을 견인. 비은행 부문 중 증권사 이익 기여도가 높은 은행일수록 비이자이익 증가폭이 확대 (KB금융 +27.8%, 신한지주 +24.7% YoY). 4대 금융지주 중 25년 연간 기준 증권사 이익 기여도 순은 KB금융 (11%) 〉 신한지주 (7%) 〉 하나금융 (5%). 참고로 KB금융은 KB증권에게 7,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진행 (자본 7.9조원), 해당 자금은 우선 WM 부문 중심으로 활용 예정임이 보도. 한편 우리금융은 보험 계열사 편입 효과가 가시화 (+24.4% YoY)

1Q26 대손비용률은 전년동기대비 5bp 하락 (커버리지 은행 가중평균 기준). 1Q25 중 홈플러스, 건설사 충당금 적립 요인을 제외한 경상 대손비용률은 전년동기대비 1bp 상승에 그치며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중. 물론 기업여신 중 부실차주 발생 등으로 건전성 지표는 상승세를 기록 (NPL비율: KB금융 +10bp, 신한지주 +9bp, BNK금융 +15bp QoQ). 다만 21년 이후 적립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규모 (커버리지 평균 총여신대비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약 0.6% 추정), 대출내 담보/보증 비율 확대 (25년 89% vs. 10년 57%) 등을 감안해 볼 시, 충분히 감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 *(2p에 계속)*

1Q26 CET-1비율 -9bp QoQ (우리금융 토지자산 영향 제외 기준)

1Q26 전통은행들의 CET-1비율은 양호한 이익을 창출했으나, 바젤III 규제개편(RW 상향), 원/달러 환율 상승 (+80원 QoQ), 기업대출 성장 ('25년 3월 위험가중치 일반기업대출 57.9% vs. 주택담보대출 18.9%, 소매대출 21.4%; 금융감독원) 등으로 전분기대비 9bp 하락 (이익 +37bp vs. RWA -30bp, 주주환원 -13bp, OCI 변동 등 -3bp QoQ; 우리금융 토지자산 +60bp 영향 제외 기준)

자본규제 합리화 vs. 생산적 금융

금융당국, 생산적 금융 위해 은행 자본규제 합리화 신규 시행 예정. 1) 주식 및 정책목적 펀드 RW 하향 ('26년 3월 시행) 외에도 2)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10년 인식 → 3년 인식으로 축소),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대상 확대 등 ('26년 4월 시행)으로 은행 CET-1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금융당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5대 금융지주 기준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는 최대 26bp,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대상 확대는 12bp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

은행별로 해당 부문에 대한 영향은 익스포져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 금번 1Q26 컨퍼런스콜에서 1) KB금융은 운영리스크 관련해 20bp 개선 효과를 (홍콩 H지수 ELS 고객 보상비용 24년 인식; 27년 상반기 인식 예정), 2) 신한지주는 운영리스크 관련해 20bp, 외환포지션 관련해 10bp 개선 효과를, 3) 우리금융은 운영리스크 관련해 17bp 개선 효과가 있음을 언급

물론 해당 자본비율 개선은 생산적 금융을 위한 것임을 고려 필요. 올해 5대 금융지주의 생산적 금융 목표 금액은 합산 81조원. 1Q26 실행액은 44조원으로 연간 목표액의 55% 달성된 상태. 2Q에도 이와 비슷한 속도로 진행될 시, 앞선 자본규제 합리화 개선효과분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

적극적인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

은행들은 비과세·분리과세 배당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2Q26 실적발표를 통해 하반기 자사주 매입을 발표할 예정. 앞서 언급한 자본규제 합리화의 일부 긍정적 영향 외에도 양호한 이익 체력, 원/달러 환율 하락 (4월말 -47원 MoM; 은행별 +5 ~ 14bp 개선효과) 등을 고려해볼 시, CET-1비율 개선 기반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 (커버리지 합산 자사주 매입 2.6조원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들의 Valuation 정상화 여력(= 글로벌 PBR-ROE 추세선 회복)은 여전히 충분하다는 점에서 은행 업종에 대한 Overweight 의견을 유지. 커버리지 은행 가중평균 2026E ROE 10%, 주주환원율 51% 기반 Target PBR 1.1배로 제시 (vs. 현재 PBR 0.7배)

최선호주는 차별화된 이익 창출력 (비은행 이익 비중 43%) 기반 업종 내 가장 높은 주주환원율 (26E 57% 추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KB금융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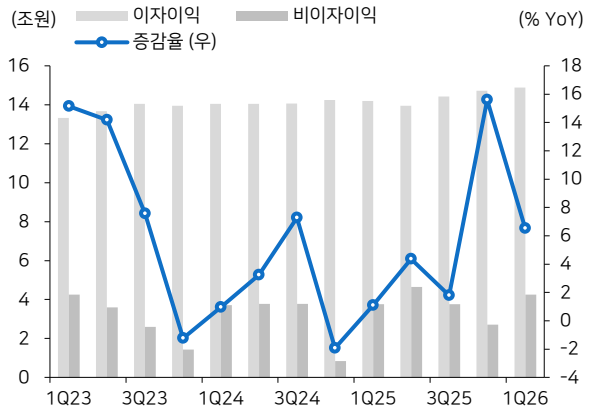
차선호주는 양호한 은행 본업 체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환율 하락 시 CET-1비율 개선폭이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시중은행 중 매력적인 주주환원수익률 (26E 6.3% 추정)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를 제시

표1 커버리지 은행 지배주주순이익

(십억원)	1Q26P	4Q25	(% QoQ)	1Q25	(% YoY)	컨센서스	(% diff.)
KB금융	1,892.4	711.4	166.0	1,697.3	11.5	1,788.9	5.8
신한지주	1,622.6	510.6	217.8	1,488.3	9.0	1,547.6	4.8
하나금융	1,210.0	569.4	112.5	1,127.7	7.3	1,130.7	7.0
우리금융	603.8	328.4	83.9	616.7	(2.1)	769.4	(21.5)
기업은행	748.7	462.5	61.9	808.6	(7.4)	706.8	5.9
BNK금융	211.4	45.0	369.8	166.6	26.9	208.9	1.2
iM금융	154.5	12.2	1,166.5	154.3	0.1	152.6	1.3
JB금융	166.1	131.7	26.2	162.8	2.1	189.0	(12.1)
합산	**6,609.6**	**2,771.2**	**138.5**	**6,222.3**	**6.2**	**6,493.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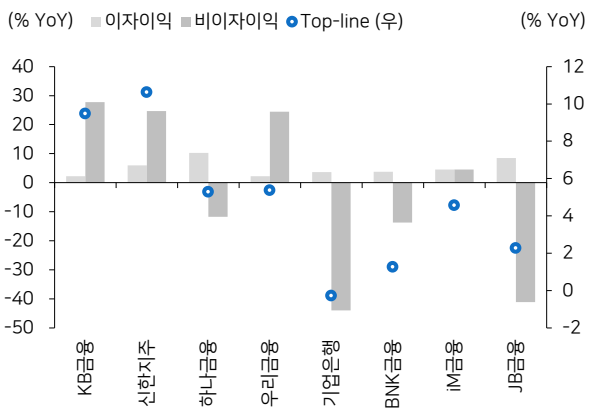
자료: 각 사,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Top-lin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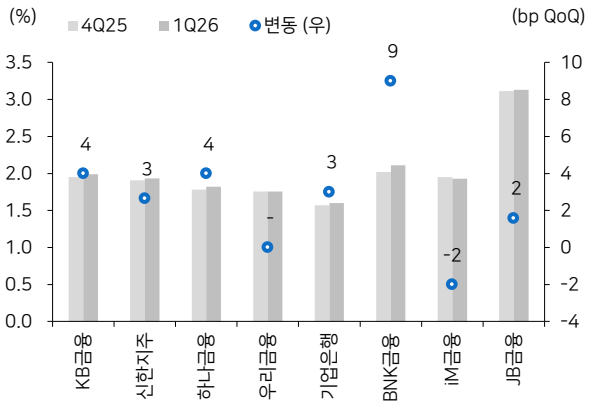
주: 카카오뱅크 제외 기준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은행별 Top-line 1Q26 전년대비 증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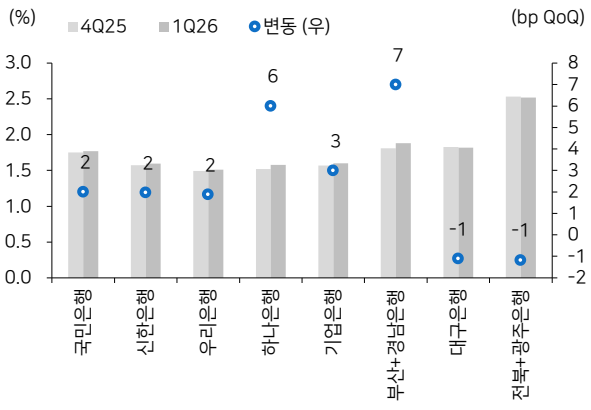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지주 기준 NIM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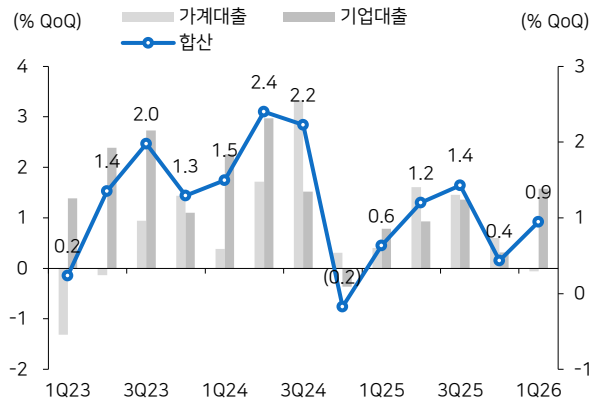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은행 기준 NIM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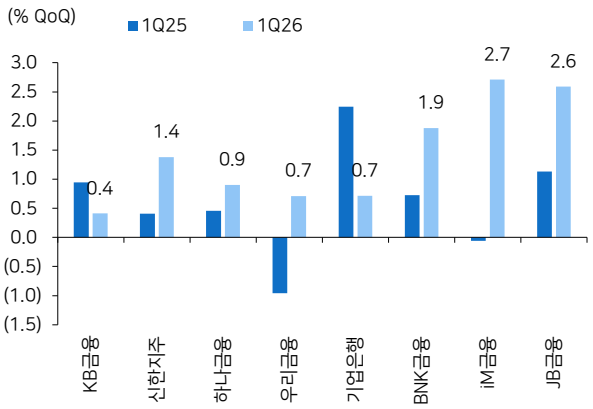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은행 대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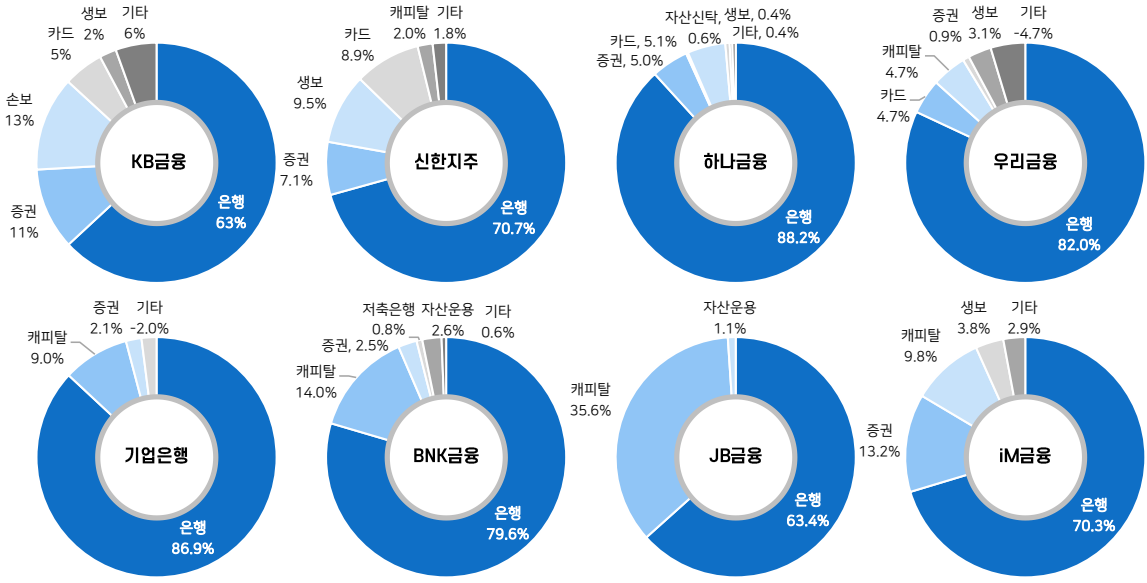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은행별 대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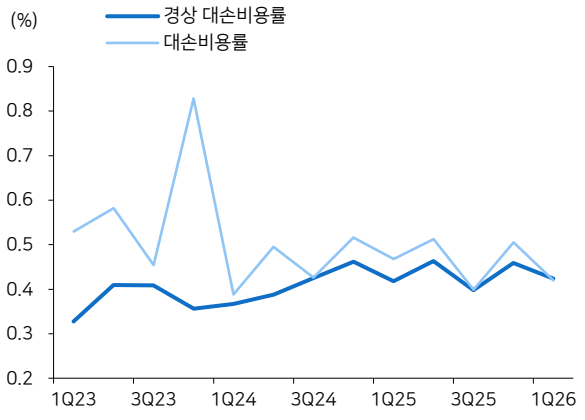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커버리지 은행: 비은행 부문 현황 (2025년 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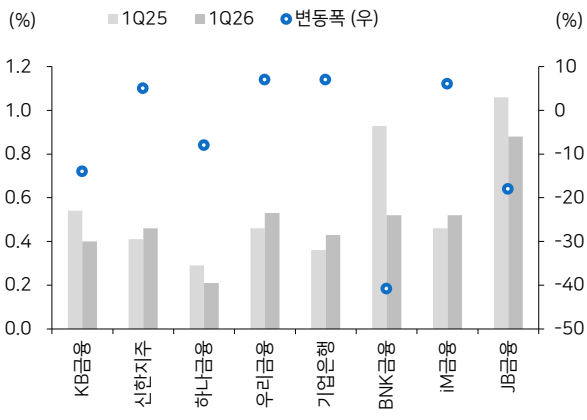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은행 가중평균 대손비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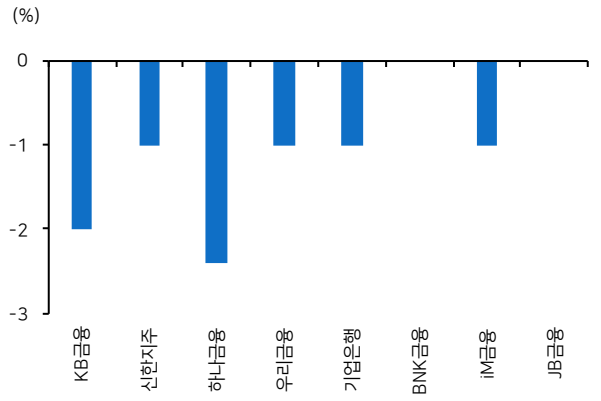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은행별 1Q26 대손비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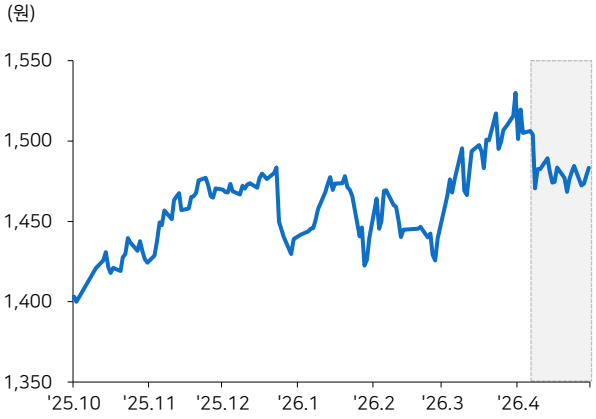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은행 CET-1비율 기준 원/달러 민감도 (10원 상승 시)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 은행 CET-1비율 Movement

(%, %p)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기업은행	BNK금융	iM금융	JB금융
4Q25	**13.82**	**13.35**	**13.38**	**12.89**	**11.48**	**12.34**	**12.11**	**12.58**
당기순이익	0.52	0.46	0.42	0.25	0.29	0.26	0.36	0.43
RWA	**(0.33)**	**(0.47)**	**(0.55)**	**(0.23)**	**(0.26)**	**(0.09)**	**(0.30)**	**(0.16)**
주주환원	(0.27)	(0.21)	(0.14)	(0.11)	0.00	(0.06)	(0.04)	(0.19)
OCI 변동 등	(0.11)	0.06	(0.02)	0.81	(0.06)	(0.15)	(0.14)	(0.05)
QoQ 변동폭	***(0.19)***	***(0.16)***	***(0.29)***	***0.72***	***(0.04)***	***(0.04)***	***(0.12)***	***0.03***
1Q26	**13.63**	**13.19**	**13.09**	**13.60**	**11.44**	**12.30**	**11.99**	**12.61**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은행 생산적 금융 관련 자본규제 합리화 현황 및 효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합리화 과제

구 분	과제명	주요 내용	시행시기
완료 (4개)	❶ 주담대 RW 상향[신용]	▪내부등급법 주담대 RW 하한 상향(15%→20%)	'26.1월
	❷ 주식 RW 하향[신용]	▪비상장 주식 위험가중치 하향	'26.3월
	❸ 정책목적 펀드 RW 특례[신용]	▪정책목적 펀드는 RW 100% 적용	'26.3월
	❹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시장]	▪해외점포 출자금 시장리스크 제외	'25.2월
신규 (3개)	❶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운영]	▪3년 이상 인식 손실사건 배제	'26.4월
	❷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 확대[시장]	▪해외 비연결 자회사 지분투자 등까지 확대	'26.4월
	❸ 내부등급법 변경승인 처리기간 단축[신용]	▪신용평가모형 재개발시	연중

자본규제 합리화 과제 효과(추정)

주요 내용	5대 은행지주별 CET1 비율 영향도
[1]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1)]	최대 +26bp
[2]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대상 확대	최대 +12bp
[3] 내부등급법상 신용평가모형 승인[2)]	-
합 계	-[3)]

1) 정량요건 충족하는 모든 손실사건 고려시(잠정), 2) 최근 사례 고려 시 변경승인 경우 +10bp 상승
3) 주담대, 주식·펀드 RW 과제와 달리 은행·은행지주별 승인사항으로 전체 합산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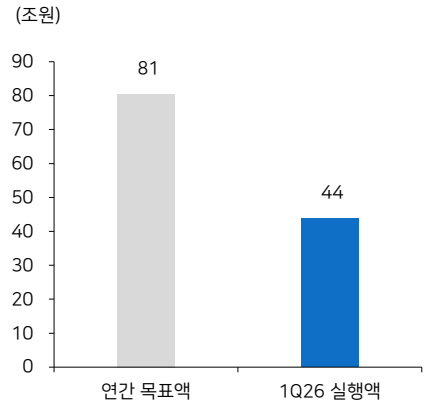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표3 **5대 금융지주 2026년 생산적 금융 목표**

(조원)	연간 목표액	참고
KB금융	16.6	국민성장펀드 2조원, 그룹자체투자 3조원, 기업대출 12조원
신한지주	17.0	국민성장펀드 2조원, 그룹 자체 투자 2조원, 여신지원 13조원
하나금융	17.8	
우리금융	12.7	첨단전략산업 분야 4.6조원, 혁신 벤처기업 3조원, 지역 소재 전략산업 3조원, 국가 주력 수출기업 1.5조원, 소상공인 특화 지원 6천억원
농협은행	16.4	
총합	**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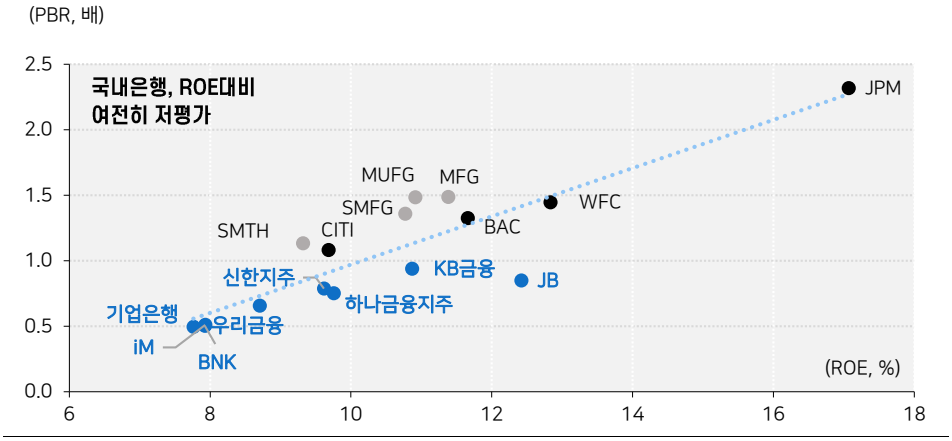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5대 금융지주 생산적 금융 실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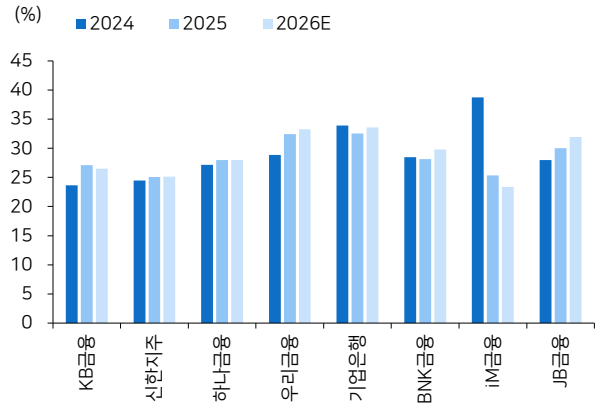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글로벌 은행 PBR – ROE (FY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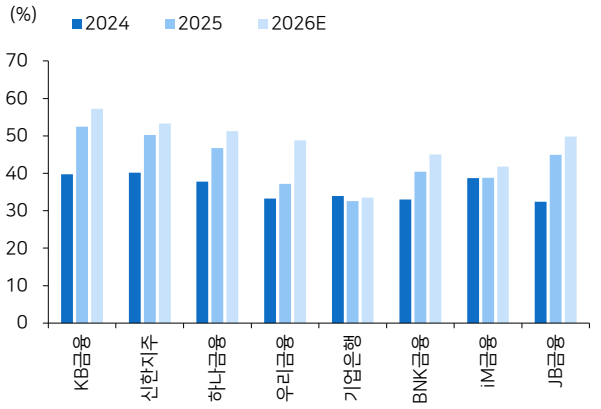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은행별 배당성향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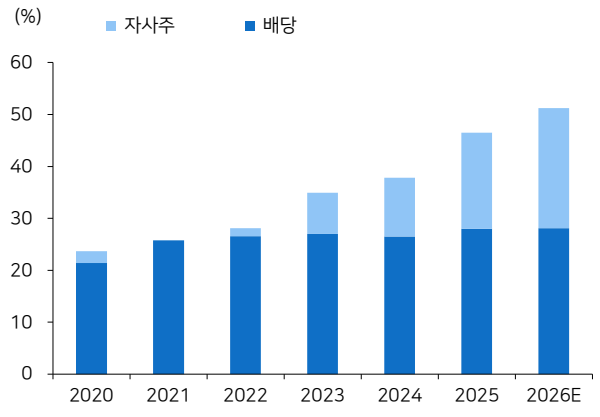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은행별 주주환원율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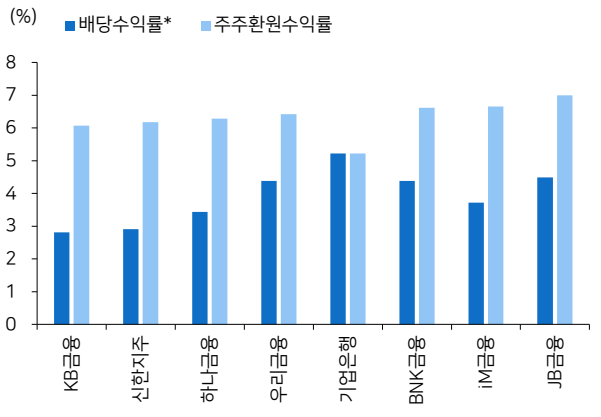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은행 주주환원율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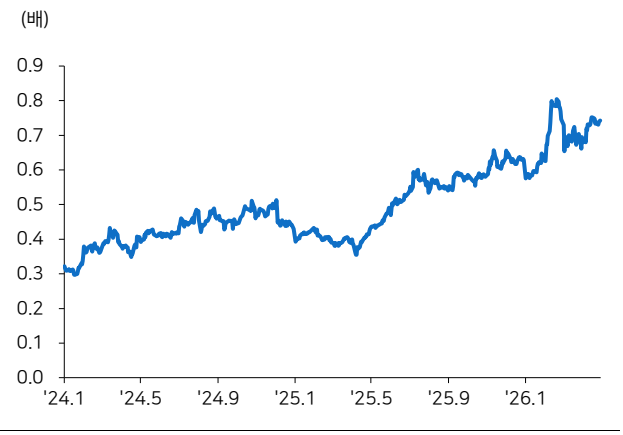
주: 회계기준 추정치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은행 배당수익률 및 주주환원수익률 (26E)



주: 4일 30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기준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은행 PBR 추이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4 은행 PBR 민감도 분석: ROE vs. 주주환원성향

PBR (배)		ROE (%)						
		7	8	9	10	11	12	13
주주환원성향 (%)	39	0.78	0.89	1.00	1.11	1.22	1.34	1.45
	43	0.78	0.90	1.01	1.12	1.23	1.34	1.46
	47	0.79	0.90	1.02	1.13	1.24	1.35	1.46
	51	0.80	0.91	1.02	1.13	1.25	1.36	1.47
	55	0.81	0.92	1.03	1.14	1.25	1.37	1.48
	59	0.81	0.93	1.04	1.15	1.26	1.37	1.48
	63	0.82	0.93	1.04	1.16	1.27	1.38	1.49
	67	0.83	0.94	1.05	1.16	1.28	1.39	1.50

주: 미국/일본은행 2024년 PBR = ROE, 주주환원율 회귀분석 결과값 활용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5 커버리지 은행 주주환원정책

은행	KB금융	상반기: CET-1비율 13.0% 초과 자본은 배당총액, 상반기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활용 하반기: CET-1비율 13.5% 초과 자본은 하반기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활용
	신한지주	주주환원율 = 1 - 자본 or RWA 성장률/Target ROE) ROE Target 10~12%
	하나금융	CET-1비율 13.0~13.5% 관리 목표: 단계적 주주환원 확대 27년 주주환원율 50%
	우리금융	CET-1비율 ~11.5%: 주주환원율 ~30% CET-1비율 11.5% ~ 12.5%: 주주환원율 ~35% CET-1비율 12.5% ~ 13.0%: 주주환원율 ~40% CET-1비율 13.0% ~: 주주환원율 ~50%
	BNK금융	CET-1비율 관리 목표 12.5% 27년 주주환원율 50%
	iM금융	CET-1비율 ~11.5%: 총 주주환원율 ~30% CET-1비율 ~12.3%: 총 주주환원율 ~40% CET-1비율 ~13.0%: 총 주주환원율 ~50% 27년 주주환원율 40%, 자사주 매입/소각 1,500억원
	JB금융	26년 주주환원율 50%: 총주주환원 - (전년배당 * 1.1배↑) = 자사주 매입/소각 CET-1비율 13.0% 초과 시 주주환원율 50% ↑ 검토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6 은행 주주환원율 민감도 분석: RWA성장률 vs. ROE

주주환원율(%)		RWA 성장률 (%)				
		3	4	5	6	7
ROE (%)	8.0	62.5	50.0	37.5	25.0	12.5
	9.0	66.7	55.6	44.4	33.3	22.2
	10.0	70.0	60.0	50.0	40.0	30.0
	11.0	72.7	63.6	54.5	45.5	36.4
	12.0	75.0	66.7	58.3	50.0	41.7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RoRWA 제고에 따른
주주환원율 우상향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서 해당 추천 종목을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